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61

JCCT 2022-5-8

서예 전문인력 양성 방안

A alternative plan to calligraphy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이재우*, 손한빈**

Lee Jaewoo*, Son hanbin**

요약 본 연구는 서예 진흥의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예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방향을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서예분야 인력 양성이라는 방향을 도출하고, 기존의 서당식, 도제식 방법과 다른 교육 전문인력 양성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서예분야 인력현황을 실태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2022년 3월 기준 한국 대학 서예학과의 교과과정 현황 전체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방향과 지정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방향은 교육 구성원이 함께 협업하여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율 연수방안을 선택하였으며, 서예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방안을 기본, 전문, 심화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지정기관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방안은 교육·전공·운영·소통역량에 총 26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서예, 서예진흥, 전문인력 양성

Abstract His study was started in the sense of examining the direction of nurturing calligraphy education professionals as the Act on Promotion of Calligraphy was enfor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irection of nurturing manpower in the calligraphy field, and to suggest a direction for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eodang-style and apprenticeship methods. To this end, we first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manpower in the calligraphy field through a fact-finding survey and prior research. As of March 2022, the overall status of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Calligraphy at Korean universities was analyzed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using teacher job training and the direction of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through designated institutions were presented. For the direction of nurturing professional manpower using teacher job training, we selected an autonomous training method that enables training members to collaborate together to enhance the competency of participants. presented as Training and training for professional manpower through designated institutions Major . operation . A total of 26 programs were presented for communication competency.

Key words : Calligraphy, Calligraphy Promotion,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1. 들어가는말

서예는 문자를 소재로 하는 조형예술로 동양의 독특한 필기구인 붓을 사용해 종이 위에 문자의 조형미를

표현하는 예술 활동이다. 아울러 서예는 의사 전달 수단인 '실용가치'와 예술적 아름다움의 '예술가치', 인성 도야와 성정함양의 '수양가치' 등의 실질적 가치가 있으며, 한국예술의 정수라는 점에서 전승 및 발전시켜야

*정회원, 경기대학교 글로벌파인아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기대학교 글로벌파인아트학과 연구원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3월 22일, 수정완료일: 2022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5일

Received: March 22, 2022 / Revised: April 20, 2022

Accepted: April 25, 2022

**Corresponding Author: 82960818@navere.com

Dept. of Global fine art, Kyonggi Univ, Korea

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가치에 힘입어 2013년 11월 5일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제1차 <서예진흥정책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한국서단의 당면과제, 법률제정 논의 등의 포럼을 거쳐 2018년 12월 11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문화와 예술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민의식의 변화, 학력 경쟁과 입시 위주의 공교육, 물질 만능주의 만연 등에 의해 순수 문화예술은 타 분야에 비해 소외되고 있으며 점차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주제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장지훈은 서예분야에 대한 전문가, 전공자, 전문인력분석 현황을 제시하였다(장지훈, 2017; 장지훈 2018)[1]. 아울러 김혜인은 시각예술 기획인력의 개념적 범위 및 인식적 특징에 대한 고찰과 해당 인력을 위한 정책적 세부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김혜인, 2013)[2], 이관섭은 전통 목공예 전문인력 양성과 전망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공예 산업 진흥 법률을 비교 분석하고, 수련과정의 체계화와 단계적인 교육을 위한 과학적 교재개발을 제안하였다(이관섭, 2016)[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무용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무용 전문인력의 취업 창출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한솔, 2012)[4]. 등과 같이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예분야 인력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한다. II장에서는 서예분야의 인력 및 교과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서술한다. III장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교원 직무연수’와 ‘지정기관’으로 분류하여 제언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총결한다.

II. 서예분야 인력 및 교과과정 현황

서두에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서예분야는 인력에 관한 단일 연구와 자료가 매우 적다. 개인 연구자가 국내 전체 인력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지금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및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0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문학, 미술 공예 등 14개의 분야의 예술인 178,54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미술 분야의 세부분야와 세부분야 인원수는 확인할 수 없다. 2019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 17,01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격을 취득한 인원의 세부 전공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서예실태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범위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서예분야 인원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러 기준을 충족한 14,445명이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작가·서예 관련 종사자·서예 애호가 등 개인으로 활동하는 인원수의 비율이 91.4%이며, 교육기관·단체기관·전시기관 등 집단에서 활동하는 인원수의 비율은 8.59%이다.

이러한 편중된 비율은 종사 직업의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초대작가(전업 작가 포함) 49.2%, 시간강사 25.2%, 서예 관련 자영업자 8.6%, 방과후 학교 서예 강사 및 서예학원 강사 6.8%, 교수 1.9%, 연구원 1.7% 라는 점을 통해, 상당수가 실기위주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예가 실기성이 강한 예술분야라는 점과 취업의 한계성 등 여러 사회적 원인이 있겠지만, 과거의 인력양성 과정 및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창작인력 집중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5].

대다수 서예인의 입문 경로가 학원(41%)이며,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원)은 9.9%이다. 서예인의 70.5%가 서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소지 인원 중 89%가 초대 작가 자격증을, 19.2%가 한자 급수 자격증, 5.5%가 문화예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서예 관련 인증내지는 수수료 또는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초대작가증서가 하나의 자격증처럼 된 것이다. 그렇다고 초대작가 증서가 서예의 전문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 증서는 일종의 꾸준한 글씨를 씌므로 얻어진 일종의 결과물과 같은 개념이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양하고, 다각적인 인력양성 및 배출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당식·도제식 교육방식을 계속 고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서예 전문인력 양성방향 제시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서예분야의 인력을 양성 및 배출한 전문 교육기관은 대학(원)이다. 그 외 교육기관인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센터 등은 서예인을 양성할 수는 있으나 단순 실기 위주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강자 또한 여가생활 향유를 목적으로 하기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손한빈·이재우, 2021) [6]. 이에 전문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원)이 유일하다.

대학 서예과의 역사는 30년이 넘는다. 우리나라 제4차 교육과정기(81.12.31-87.06.30)에는 1980년 교육개혁조치(07.03) 와 사회적 변화, 제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제5차 교육과정기(87.06.30-92.06.30.)에는 초등학교 3-6학년까지 미술과 교과서가 국정으로 편찬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턴 ‘붓글씨 나타내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학교 서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본체를 교과서 서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서예교육이 진일보 했다고 할 수 있겠다(이재우, 2018)[7]. 이러한 정부의 교육적 관심에 힘입어 초등학교 학생의 서예교육의 열의가 고조되고, 서예활동의 장려에 따라 서예인구가 급증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이후 서예인구가 급증하고 서예학과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84년 한국서예가협회(당시 회장 김충현)를 중심으로 국회에 서예학과 신설을 청원, 1988년 원광대학교에 최초의 서예학과가 설립되었다(장지훈, 2018)[8].

표 1. 대학 서예학과 설립현황 및 졸업인원
 Table 1. University calligraphy department establishment status and number of graduates

대학			
설립년도	학교명	졸업인원	비고
1989	원광대 서예학과	620명	폐과
1992	계명대 서예과	420명	폐과
1995	대구예술대 서예학과	150명	폐과
1998	대전대 서예디자인학과	380명	폐과
2000	호남대 서예문자예술학과	90명	폐과
2003	경기대 서예학과	230명	
총계	6개 대학	1,890명	

*자료원 : 장지훈 (2018). 한국 대학의 서예교육과 교원양성 실태. (2021년 12월 수정)

표 2. 대학원 서예학과 설립현황 및 졸업인원

Table 2. Graduate school calligraphy department establishment status and number of graduate

대학원			
설립년도	학교명	졸업수	비고
1989	원광대 대학원 서예학 전공	150명	폐과
1996	계명대 예술대학원서예 전공	80명	폐과
1995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서예학 전공	50명	
2000	경기대 서예학과	30명	
2002	대전대 대학원 서예학 전공	100명	
2004	호남대 대학원 서예전공	30명	
2006	동방문화대학원 서예전공	30명	
2006	수원대 미술대학원 서예전공	30명	
총계	8개 대학원	700명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2019년 3월 제공 자료; 장지훈 (2018) (2017년 12월 기준)

2009년 교육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계획에 따른 문화교육 침체와 천편일률적인 대학구조 조정, 취업난 가속화로 인하여 <표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 대학에서 서예학과는 경기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 모두 폐과되었다. 아울러 <표 2> 의 6개의 대학원이 대학의 부족함을 보조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은 서예교육이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2019년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감안한다면 서예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시대에 맞는 서예교육과정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새로운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해 대학(원) 졸업생의 사회진출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교육기관인 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후속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은 어떠한 분야가 전승·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는데,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가 그렇듯 연령층, 기관, 직업군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서예분야의 연령층은 초·중·고·일반으로 나뉘며, 일반은 또 20대부터 80대까지 각각 나뉜다. 기관은 전시기관·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상법기관·협회 및 기타 단체로 나뉘고, 직업군 또한 작가·연구원·학예사·언론 기자·평론가·자영업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직업군을 조금더 세분화 하면 고등학교 미술교사, 서예전공 외래교수, 초등학교 예술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사, 대한민국 국회, K-Auction, 서예전문 월간지, 박사과정, 전업작가, 한국

캘리그래피연구소 소장, 출판디자인 회사 사장 등이 있다 (장지훈, 2017)[9]. 바꿔 말하면,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서예를 접목·응용할 수 있는 양성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의 연구에 따르면, 서예인의 지난 1년간 참여 서예 활동 중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여 비율은 6.8%밖에 되지 않으며, 전시회(65.1%)와 교육(45.7%)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서예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확대가 필요한 분야(1순위)’로써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23.7%로 2순위는 점을 볼 때, 6.8%는 서예인들이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싶으나 현재 별도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과정이 없는 실정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대학의 서예과 전공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대학교, 대전대학교, 호남대학교만 존속해 있는 실정이다. 이중 호남대는 독립적인 학과가 아니라 미술학과 내에 서예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온전한 학과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학입시에서 정식 서예학과로 분류되는 학교는 경기대학교와 대전대학교라고 할 수 있다(장지훈, 2018)[10]. 2017년 당시에 개설된 대학의 서예교육 교과과정을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3. 한국 대학 서예학과의 교과과정 현황(2017년 12월 기준)
Table 3. Curriculum status of the Department of Calligraphy at Korean University (as of December 2017)

학교명	서예전공 개설교과목(학점)
경기대학교	한문서예(2), 한자서예연구(3), 한글서예(2), 한글서예연구(3), 전서실기(3), 예서실기(3), 행서실기(3), 초서실기(3), 사군자실기(3), 문인화실기(3), 전각실기(3), 사경실기(3), 금석문연구(3), 서예와디자인(3), 서예학개론(3), 동아시아서예사(3), 한국서예사(3), 한문강독(2), 고전명문강독(3), 서예감상비평(3), 서예치료학(3), 서예현장실습(3)
대전대학교	기초서예(2), 전서실기(2), 예서실기(2), 행서실기(2), 초서실기(2), 한문서예창작(2), 한문서예창작프로젝트(3), 한글실기(2), 한글서예창작(2), 사군자(2), 문인화창작(2), 전각창작기법(2), 서각실기(2), 문자디자인(2), 캘리그래피(2), 광고영상서예(2), 졸업작품프로젝트(3), 서론(2), 중국서예사(2), 한국서예사(2), 일본서예사(2), 금석문자학(2), 서예상담치료(2), 한문학개론(2), 한문문법론(2), 생활한문실습(1), 고전명시선독(2), 서예한문교육실습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3)
호남대학교	전통서예(2), 서예(2), 문인화(3), 서법드로잉(3), 미술교과교육론(교), 미술교과논리및논술(교),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교), 미술교육론(문), 미술교수학습방법(문),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문)

*자료원: 장지훈 (2018). 한국 대학의 서예교육과 교원양성 실태. <표4> (2022년 2월 수정)

<표 3>과 같이 경기대학교의 경우 3학점 위주로 전통서예, 응용서예, 서예이론이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대전대학교는 과목 대다수가 2학점 위주이고 과목의 다양성이 특이하다. 호남대학교의 경우 서예 과목의 비중은 적으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과목설치기준에 따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 한국 대학 서예학과의 교과과정 현황(2022년 3월 기준, 석·박사과정 포함)

Table 4. Curriculum status of the Department of Calligraphy at Korean universities (as of March 2022, including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학교명	서예전공 개설교과목(학점)
경기대학교	서예재료와기법(3), 한문서예기초(3), 한글서예기초(3), 전서실습1(3), 예서실습1(3), 한글서예실습1(3), 서예역사와문화(2), 전서실습2(3), 예서실습2(3), 한글서예실습2(3), 문자학과조형원리(2), 문자학과조형원리(2), 행서실습(3), 행서실습1(3), 전각실습1(3), 서예디자인1(3), 근현대서예연구(2), 서예전공개별진로연구(1), 초서실습(3), 행서실습2(3), 전각실습2(3), 서예디자인2(캡스톤디자인)(3), 서예현장교육실습(3), 한문서예창작1(3), 한글서예창작1(3), 현대서예문인화창작1(3), 동양고전과작품응용(2),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2), 한문서예창작2(3), 한글서예창작2(3), 현대서예문인화창작2(3),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2)
경기대학교 미술학과 서예학전공	동양미학론(3), 동양서화론(3), 동양고전과예술정신(3), 서예사연구 I (3), 서예사연구II(3), 서론연구 I (3), 서론연구II(3), 서예특론 I (3), 서예특론II(3), 서예미학론(3), 금석문연구(3), 초서연구(3), 문인화론(3), 고문자학연구(3), 고서화감상과 이해(3), 서예비평론(3), 서예교육론(3), 한글서예연구(3), 서예창작세미나 I (3), 서예창작세미나II(3)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예전공	고전강독, 금석학연구, 동양미학, 문인화연구, 문자학연구, 사군자창작, 서론연구, 서예비평연구, 서예재료학연구, 서지학, 예서창작, 예술철학, 전서창작, 중국서예사연구, 초서창작, 한국서예사연구, 한글전각, 한글창작연구, 한문전각, 해서창작, 행서창작
	한글서예창작연구, 문인화창작연구, 전각연구, 전서창작연구, 예서창작연구, 해서창작연구, 행초서창작연구, 고문자학연구,

		초서간찰연구, 한국서예사특론, 예술철학특론, 서예미학연구 서예미학박사논문연구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예전공	석사	기초산수화, 동양미술사, 문인화, 서양미술사, 서양화기초, 서예, 수묵화, 유화기법, 전각, 전통서예, 조형, 표현기법, rawing&Computer 미술사, 서화론, 서예 I (3), 서예 II (3), 서예 III (3), 서예 IV (3)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서예학 동양미학전공	석사	한.당서예미학(2), 송.명서예미학(2), 한국서예사(2), 한글서예사(2) 문인화론(2), 중국서론특강(2), 한국서론특강(2), 서예감상과비평(2) 중국서예발전사(2), 서예와인성교육(2), 서예와도가미학(2), 서예와유가미학(2), 중국서화론세미나(2) 서화미학논문작성법(2), 한국근현대서예미학(2), 조선조서예미학특강(2)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예전공	석사	현대미술비평론(2), 동양예술론(2), 서양현대미술사(2), 미술경영론(2), 전각론(2), 서예평론(2), 서화론(2), 논문(2), 전서실기, 서체연구(2) 해서실기(2), 서체연구(2), 행초실기(2), 서체연구(2), 한글판본고체실기(2), 서체연구(2), 한글필사체실기(2), 서체연구(2), 한글궁체실기(2), 서체연구(2)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 콘텐츠학과 문자조형	석사 박사	서예개론, 서예작가연구, 한국서예사1, 한국서예사2, 서예감상론, 서예미학연구, 서예비평사, 미적인간학실습1, 미적인간학실습2, 미학과예술론, 불법과예술연구, 한시강독, 금석문강독, 간찰강독, 중국서예사1, 중국서예사2, 서론연구1, 서론연구2

<표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기대학교만이 유일하게 서예학과가 존립하고 있다. 대전대와 호남대의 학부과정은 현재 폐과되고 현재 석·박사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 수원대, 동방문화대는 학과 설립 당시부터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서예전공은 Fine Art 학부제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신규교과 과정은 202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대학교 학부의 수업은 전통, 응용, 현대가 3 학점씩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대전대학교와 호남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학점은 알수 없으나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는 개설과목 전부 2학점이고 과목의 다양성이 특이하다. 특히 대전대학교의 교과목은 기존의 학부와는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한.당서예미학, 송.명서예미학, 서예와도가미학 등 미학과목을 특화시킨 차별성이 돋보인다. 총 7개 대학 중 5개학은 기존의 전통교과목의 강좌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전통 서예인을 집중 양성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경기대학교는 교과과정 적용과 발맞춰 2021년 6월 문화예술교육사 과목 심의요청을 하였고, 2021년 9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과목설치기준에 따른 교과목 승인을 얻었다. 또한 학부제로 통합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자 개설교과목을 현 시대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확대 개편 하였다.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단순한 실기와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전공 분야와 비교해서도 차별성이 부각되며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진정한 학문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과과정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3장에서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서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지정기관에서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III. 서예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제안

서예 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7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수를 받거나 소기의 교육과정을 달성한 자를 의미한다. 본 장에서 양성방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안하는 이유는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 관련 전공과목 이수여부, 교육대상에 따른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서예 전문인력 양성방향과 지정기관에서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제안한다. 다만 여기에서 주요 개설과목은 제안하되, 학점과 이수 구분, 세부 지정기관에 대한 사항은 논외로 한다. 아울러 2장에서 논의한 것을 근거로 하여 향후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게될 프로그램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1. 교원의 직무연수를 활용한 서예 전문인력 양성 방안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교원의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법률 제16871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59호)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직무연수로 구분한다.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자격연수는 교사, 원장, 교감, 교장 과정으로 구분 하되,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라 함은 직무연수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법적 규정성은 없으나 자율연수를 함께 일컫기도 한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성장단계별 핵심역량에 따른 연수체제 수립하고, 교사 4개 핵심역량 및 12개 하위 역량요소, 교(원)감·교(원)장 3개 핵심역량 및 10개 하위 역량요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20)[11]. 직무연수는 크게 맞춤형과 미래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맞춤형은 학교 관리자, 신규 임용, 복직예정, 계약직 등으로 나뉘지고, 미래형은 특수분야의 확대, 수요자 중심, 디지털, 지역 중심으로 구분해서 실시한다.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해 서예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하려면, 수요자 중심의 연수에서 공모연수를 선택·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경기도교육청, 2021:11)[12].

공모연수는 ‘공동 연구 및 실천을 통한 동반 성장’과 ‘집단 지성의 공동체 문화 조성’, ‘교육 연구회의 자생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교원, 일반직, 공무원,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한다. 그 중 6대 공모영역에서 교원역량과 콘텐츠 개발 역량 공모영역을 선택해 연수를 실시한다. 특히 콘텐츠 개별 역량은 교원들이 실행학습, 워크숍, 공동 연구-공동 실행을 통해 콘텐츠를 개발·평가하고 연수과정에 환류하는 연수이다.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협업하여 연구·개발·실행·공유를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모연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경기도교육청, 2021:9-10)[13].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직접 기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지정되어 있는 연수에 특정분야를 한정된 직무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이라 본다. 따라서 전국 단위 교원연수는 기획, 주최, 주관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예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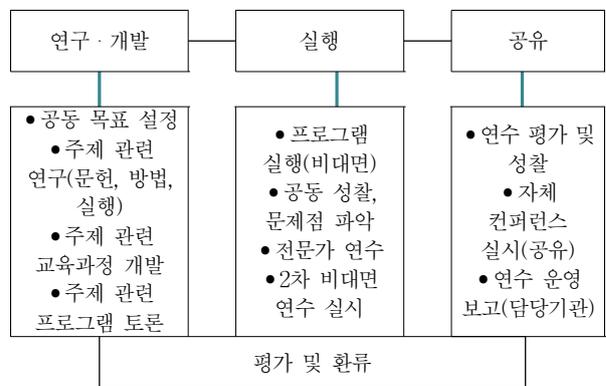
이에 대한 운영방안으로 먼저 서예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칭)‘서예 교육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후에는 지원사업 심사 및 연수기관을 선정한다. 지원기관 선정은 교원연수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외에 추가적으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한다. 지원기관이 선정되면 지원사업 운영 실무자 및 모니터링 요원 워크숍과 16개 광역 시, 도 교육청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신청 및 운영을 실시한다. 방학기간 중 연수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치고 연말에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과 발표를 갖는 것이 비교적 양호한 방법이다.

서예교육은 ‘서예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예에 대한 학습’과정을 거쳐 ‘서예를 통한 문화완성’이라는 직무연수 구조를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연수를 기획·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예의 분류(한글, 한문, 문인화, 현대, 전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에는 각 과정별 연수목적과 내용이 달라야 하며, 연수 대상자 또한 점층적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서예교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연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토대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연수시간은 주 30시간으로 하되 개강과 폐강식을 포함하여 33시간으로 설정한다. 연수 대안을 각 과정마다 달라지며, 연수 시기는 하계와 동계 방학에 실시한다. 방학기간에는 앞서 제시한 4단계의 전 과정을 개설하여 연수 신청제도를 마련한다. 다만 중복 이수자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이수했던 교사는 제외한다(문화재청, 2010:424)[14].

표 5. 공모연수 연수절차
Table 5. Competition training training procedure



*자료원: 경기도교육청(2021)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서예 전문인력 양성방향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아래의 <표 5>, <표 6>, <표 7>, <표 8> 같다.

표 6. 직무연수 제안(안)

Table 6. Proposal for job training (d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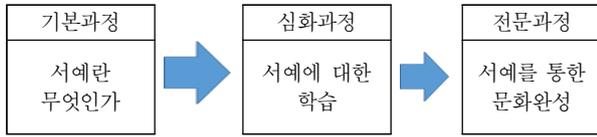


표 7.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서예 전문인력 직무연수 기본과정 개설과목(안)

Table 7. Calligraphy specialist job training basic course opening courses using teacher job training (draft)

주요 개설과목	
현대의 서예교육이란?	서예학개론1
서예교육론1	서예재료학
한글서예실습	한자서예실습
서예교육의지역화교육방안	서예교육자료제작
서예교육평가	서예비평

표 8.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서예 전문인력 직무연수 심화과정 개설과목(안)

Table 8. Calligraphy specialist job training advanced course using teacher training (draft)

주요 개설과목	
서예교육의 성과	서예재료학
한글서예실습1	한글서예실습2
감성캘리그래피1	감성캘리그래피2
서예감상및비평	서예교육평가
교과수업및창의적체험활동방안	서예교육을 통한 수업설계 및 프로그래밍

표 9.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서예 전문인력 직무연수 전문과정 개설과목(안)

Table 9. Calligraphy specialist job training using teacher job training courses (draft)

주요 개설과목	
서예학개론2	서예교육론2
문화유산활용한서예교육	서예교육의기획프로그래밍
서예교육활동지제작	서예교육활동지제작의실제
서예감상과비평1	서예감상과비평2
서예체험활동환류방법론	서예교육의전망

상기의 연수 과정 중 ‘서예란 무엇인가(기본과정)’에서는 서예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학습을 희망하는 교사를 위주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서예에 대한 학습(심화과정)’을 통해 서예의 교육의 기본이 되는 재료를 다루는 법, 교과과정에 따른 한글서예와 응용에 대해 연수,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중심의 연수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서예를 통한 문화완성(전문과정)’에서는 서예교육의 기획 및 활동, 교육활동지 제작, 평가는 연수생이 기획에 직접 참여를 통해 양질의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교원 직무연수가 실시되어 교원의 서예 교육 이론과 실기의 전문성이 제고되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보다 수준높은 예술적 체험활동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미술과 교육을 통합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지정기관에서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 방안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지정기관이라고 함은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시행규칙 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다만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기관을 승인한 기록과 인력양성 방향과 관련한 사업이 전무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먼저 서예진흥의 목적과 관련하여 서예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예진흥의 목적은 다양한 서예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서예교육의 대상이 전문가, 취미, 수집, 비평, 영리, 교육인지 명확하게 고려할 필요 있다.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한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서예교육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방식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술교육의 주체에 대한 정체성 고민도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 이상적으로는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예술과 교육의 두 측면에서 균형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전문인력이 온전히 갖출 수도 없으며,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이 없다면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향후 전문인력의 처우 및 고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예술과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이 강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중에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의 신분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처우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역량강화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잡하고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강의를 듣는 것 역시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향후 서예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서예 교육 전문인력, 민간기업체, 사설 학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운용되어지는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도 수반 되어져야 한다.

비록 서예라는 특수한 장르의 성격과 유관하지는 않지만 지원·인력양성이라는 정책적 큰 틀에서 살펴봤을 때 김혜인(2013)의 연구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시각예술 기획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력양성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점과 더불어 인력의 경력 개발을 위한 단계별, 순차적, 주기별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인력양성 지원은 예비 및 신진인력을 위한 성격이 대부분이며, 활동 중인 경력급 기획인력의 새로운 구상과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활발히 활동 중인 기획인력들은 업무 누적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한 기획 컨텐츠와 인력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생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라는 중장기적인 인력양성의 방향성 정립이 미흡하다는 점이다(김혜인, 2013 : 39).[15]”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은 교육 5과목, 전공 10과목 이수에 집중되어있다. 1급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방향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제도와 서예분야의 전공영역, 학생의 운영관리와 지역사회, 시민과의 소통을 고려하였다[16].

지정기관에서 서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주요역량은 4개 영역으로 구성 한다. 교육역량은 교육·교수 학습역량이다. 전공역량은 실기와 이론을 아우르는 전공 학습영역이다. 운영과 소통역량은 지정기관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어 사회진출을 위한 활동 영역이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서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면 아래의 <표 10> 와 같다.

표 10. 지정기관에서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과목(안)
Table 10. Calligraphy specialist training program at designated institutions (draft)

주요역량	주요 개설과목
교육역량 (5)	문화예술교육개론, 미술교육론, 미술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개발,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전공역량 (12)	서예학개론, 고전명문강독, 동아시아서예사, 한국서예사, 서예감상과비평, 서예치료학, 한글서예연구, 한문서예연구, 문인화연구, 전각연구, 서예재료학, 감성캘리그래피
운영역량 (6)	미술현장 및 정책론, 서비스 관리론, 조직관리론, 서예교육기획, 기금조성론, 법과 세제 개편
소통역량 (3)	전문인력교류, 교육실천사례연구, 서예교육을통한지역화교육

먼저 교육역량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역량 5개 과목을 지정교과목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서예 전문인력 직무연수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8조 1의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의 직무역량을 활용하면 교육역량을 갖추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2022). 전공역량은 2장에서 밝힌 서예 전공의 개설교과목을 참고하여 이론과 실기 6과목씩 총 12개의 전공역량으로 압축하였다. 운영역량은 서예교육의 전문성강화와 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총 6과목으로 설정하였다. 소통역량은 전문인력간의 교류활성화와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피교육자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총 3과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와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기의 능력을 갖춘 서예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서예학 관련 교과 과정을 일부 재조정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서예학이라는 분야가 보다 더 교육현장, 사회교육에서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실무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교수진은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와 동시에 초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 문화센터 등에서 원활하게 교육과 운영업무를 처리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 밖에도 서예학과는 다른 학과와 연계하여 해당 전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전문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응용적인 지식을 보탬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 방안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예학 전공 출신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지식 바탕 위에 교육실무나 경영학의 지식을 차용하여 새롭게 학습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한다면 우리나라 국가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될 수 있을것이라 여겨진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변화와 더불어 서단을 비롯한 민간 및 정부의 서예전문 인력 교육시스템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까지 관습처럼 이어지던 서예 전문인력 양성 방법에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어지는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한다.

정리하자면 향후 정부에서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정을 받은 학교 및 민간기관, 단체는 전문성으로 차별화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서예분야 인력현황 분석을 통해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하였다. 앞서 서술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서예인력은 불균형한 상황이다. 현재 서예인력의 90%이상이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교육기관·단체기관·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가 실기 중심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된 인력현황은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

둘째, 전문 교육기관인 대학(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른 기관이 전무하다. 그렇다고 해서 서예인의 약 63%가 소지하고 있는 초대작가증이 전문인력이라는 자격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각 단체의 기준에 충족해서 부여받은 증서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서예분야는 분명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두 가지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먼저 교원 직무연수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인데, 수요자 중심의 연수에서 공모연수를 선택·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서예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에서 직접 기획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함께 협업하여 연구·개발·실행·공유를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율연수방안을 선택하였으며, 서예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방안을 기본, 전문, 심화과정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지정기관에서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총 4개역량 26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과거의 도제식 인력양성 구조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교육 방식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원 직무연수와 지정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은 서예분야 인력 및 교과과정 현황을 분석하여 반추해보고,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게될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지정기관을 통해 배출된 서예 전문인력은 한국서예를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여겨진다.

References

- [1] Jihoon Jang (2017). Graduates of Korean University's Calligraphy Department Goes to Society - Focusing on Kyonggi University, Study of Calligraphy 31(1). 287-298. Korean Calligraphy Society. <http://dx.doi.org/10.19077/tso.c.2017.31.10>
- [2] Jihoon Jang (2018). Calligraphy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in Korean universities, a study on calligraphy 33(1). 211-236. Korean Calligraphy Society. <http://dx.doi.org/10.19077/tsoc.2018.33.8>
- [2] Hyein Kim (2013). Concept of culture and arts planning manpower and plan to revitalize manpower training: Focusing on the field of visual arts, research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8(4). 23-45. Korean Society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 [3] Kwan-seop Lee (2016). Nurturing and Prospect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Traditional Korean Wood Crafts, A Study on Formative Design 19(1). 337-351. Korea Plastic and Design

- Association.
- [4] Hansol (2012), A study on fostering dance education professionals,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 [5]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20), calligraphy survey, Seoul: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6] Hanbin Son·Jaewoo Lee (2021), Korean Calligraphy Education Program Status and Policy Direction Suggestion, *Oriental Arts* 51(1), 139-161, Korean Society of Oriental Arts. <http://dx.doi.org/10.19078/ea.2021.51.6>
- [7] Jaewoo Lee (2018). 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art and calligraphy curriculum and textbooks, *Oriental Arts* 40(1), 217-248, Korean Association of Oriental Arts <http://dx.doi.org/10.19078/ea.2018.40.9>
- [8] Jihoon Jang (2018). Calligraphy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in Korean universities, a study on calligraphy 33(1). 211-236. Korean Calligraphy Society. <http://dx.doi.org/10.19077/tsoc.2018.33.8>
- [9] Jihoon Jang (2017). Graduates of Korean University's Calligraphy Department Goes to Society - Focusing on Kyonggi University, *Study of Calligraphy* 31(1). 287-298. Korean Calligraphy Society. <http://dx.doi.org/10.19077/tsoc.2017.31.10>
- [10] Jihoon Jang (2018). Calligraphy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in Korean universities, a study on calligraphy 33(1). 211-236. Korean Calligraphy Society. <http://dx.doi.org/10.19077/tsoc.2018.33.8>
- [11]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20), Research on teacher competency development to establish a core competency-based growth system, Gyeonggi-do: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12]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21), 2021 Teacher Job Training Basic Pla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13]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21), 2021 Teacher Job Training Basic Pla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1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0). Basic research on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 [15] Hyein Kim (2013). Concept of culture and arts planning manpower and plan to revitalize manpower training: Focusing on the field of visual arts, research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8(4). 23-45. Korean Society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 [16] Jongjin Park(2022).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key competencies for the innova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1, pp.285-290,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85>